



내집처럼 드나드는 시골마을 미술관

고흥 남포미술관, 수준 높은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몰이

소나무, 단풍나무, 때죽나무, 이팝나무... 나무를 팔아 전시회를 여는 바닷가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 앞마당에서는 밤이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마을 노인들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삶의 추억을 들려주기도 한다. 밤 바다에 쏟아지는 별빛처럼 아름다운 전시회를 열어주던 이 미술관이 다행스럽게도 큰 상을 받았다.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남포미술관 관형수 관장이 한국사립미술관 협회(회장 이명옥)가 주는 사립미술관 관장상을 받았다. 전국 150여 개의 사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주는 의미 있는 상이다.

남포미술관은 지난 2005년 2월 23일 폐교가 된 영남중학교(설립자 관귀동) 부지(8천264㎡)에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관 관장이 사재 등 2억8천여만원을 들여 문을 열었다. 이 미술관은 1천223㎡의 규모로 전시장, 공연장, 공물 연습실, 자료실, 구내식당을 갖추고 있다.

팔영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오지인 이곳은 인근에 변변한 관광명소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3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는 문화 명소가 됐다.

다양한 초대전과 기획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룬 성과다. 해마다 7~8차례 기획 전시를 열고, 300여점의 소장품도 상시 전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내 집 드나들듯 미술관을 찾고 있다.

또 국립민속국악원, 한국예술총

합학교 4중주단, 한우리 오페라단, 뿌리 예술단, 모던팝스오케스트라 등을 초대해 지역민들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줬다.

어려움도 많았다. 매달 기획전을 열다 보니 한 해 운영비만 8000여 만원이 들어갔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 더 이상 미술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수 십년 전 관장이 취미 생활로 미술관 주변에 심어뒀던 나무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줬다.

“미술관 운영을 접으려고 했는데, 조경수 가격이 치솟으면서 나무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 덕분에 계속 전시회를 열 수 있었어요.”

나무들이 도시로 팔려가는 대신, 텅빈 시골 마을에는 해마다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아름다운 산 자락과 어우러진 미술관에 자연이 또 하나의 선물을 준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나무를 너무 많이 팔아 2만주에 달했던 그의 나무 숲

에는 이제 3000주 가량만 남아 있다.

“운영비가 부족해 작품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을 만끽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편 남포미술관에서는 오는 2012년 1월 10일까지 중견 서양화가 김상선씨의 초대전이 열린다. 문의 061-832-00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관형수 관장, 사립미술관 관장상 수상

“한때 운영포기 생각도... 자연·예술 만끽 행복”



남포미술관 전시장 모습

보성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3주년

한국대표 문학기행 필수코스 자리매김

이종상 화백 벽화 눈길

관광객 30만명 다녀가

출간 후 700만권 이상 팔린 조정래 '태백산맥'(전 10권)은 한국 현대문학의 보석같은 존재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보성군(군수 정종해) 별교에 세워진 태백산맥 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태백산맥 문학관이 지난 21일로 개관 3주년을 맞았다.

태백산맥 문학관은 '태백산맥'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현부자 집과 소화의 집이 자리한 별교를 제석산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땅속에 묻혀 있던 역사를 세상에 드러냈던 '태백산맥'의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산과 건물, 김원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 자체도 큰 화제를 모았었다. 3년이 지난 지금, 문학관을 다녀간 사람이 30여만명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 대표 문학기행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소설속으로 문학 기행을 꿈꾸는 이들을 비롯해 종교고 수확여행단, 대학 동아리, 각종 단체와 모임,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남도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전시실에는 1983년 집필을 시작으로 6년 만에 완결한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전시돼 있다. '소설을 위한 준비와 집필', '소설 '태백산맥'의 탈고', '소설 '태백산맥' 출간 이후', '작가의 삶과 문학 소설 태백산맥'이란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만 6000 매 분량의 태백산맥 육필원고를 비롯한 159권 719점이 전시중이다.



태백산맥 육필원고



태백산맥 문학관

관객이 지난해 30만명 이상 다녀간 가운데, 이종상 화백의 '북 카페'와 작가의 방이 마련돼 있다.

문학관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이종상(전 서울대 교수) 화백이 제작한 벽화다. 세계 최대·최고 자연석 옹석 벽화(81m×8m)를 세계기네스북에 등록하기 위해 보성군은 지난 6월 9일 한국기네스북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세계기네스북 등록도전하고 있다.

보성군은 또 최근 김범우의 집과 홍교다리, 소화다리, 중도방죽 등을 잇는 별교유채국~별교읍사무소 구간을 문학거리로 조성하고 쉼터 공간도 마련했다.

관람 시간 오전9시~오후5시(월요일 휴관), 무료관람.http://tbsm.boseong.go.kr/ 문의 061-858-29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승성기자 kim0686@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어라!

연극시리즈 '보고 싶습니다' 내달4일까지 기분좋은극장

드라마나, 영화 어디선가 한번쯤은 본 듯한 조금은 뻔한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잘 짜여진 대본과 정갈한 배우들의 연기가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다. 마음껏 울게 하고, 마음껏 웃게 만드는 작품이다.

광주 MBC '연극이 좋다' 시리즈의 10번째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 '보고 싶습니다'는 초연 후 20만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했다.

주인공은 달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지순과 폭력배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독희. 앞이 보

이지 않는 지순과 조금씩 마음을 열아가는 독희를 좇는 누군가가 있고 독희의 삶은 불안하다. 여기에 지순의 눈을 뜨게 해주는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또 다른 결심을 하는 동생 지상이 얽히면서 극은 파국을 맞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순이 독희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는 장면, 홀로 남겨진 지순이 언제나 함께했던 곳에 홀로 앉아 있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이 많다.

작품속에는 웃음이 곳곳에 포진해



연극시리즈 '보고 싶습니다' 내달4일까지 기분좋은극장

있다. 동네 청년 헬멧이와 강병이, 술집 아가씨 경자의 존재는 웃음을 터트리게 하는 '대사'들과 함께 배우들의 몸 에 익은 연기가 어우러져 시종일관 유포함을 준다. 하지만 일부 장면에서 감정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점은 아쉽다.

여주인공 지순역의 배우와 조역들의 연기도 안정적이며 좁은 소극장 공간을 활용한 무대 장치도 인상적이다. 12월 4일까지(월요일 공연없음) 광주 상무지구 우체국보험회관 기분 좋은 극장.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

www.geums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p>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p> <p>●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p> <p>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p>	<p>●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p> <p>오찬정식 15,000원</p>
--	--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

예약 및 문의: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